

# 함께하는 가치로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

## 우범기 시장 “상호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지역발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해 전북 발전 이끌 것”

민선8기 우범기호(號) 전주시가 전북도와 인근 시·군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지역대학들까지 협력 체계 확장에 적극 나서는 등 광복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강한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기업들은 물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연구기관들과의 다양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 ▲상생의 힘으로 전북의 새 시대를 열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제주, 세종, 강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시는 전북의 중추도시로서 타 지역과 협력하며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전북 발전을 견인할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전주시는 전북도 및 인접 시군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주를 둘러싼 완주군은 전주시민과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어 전주가 광역도시로 성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 완주와의 상생·협력은 필수적이다.

전주와 완주는 지난해 11월부터 5차에 걸쳐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 협력사업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수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사업 △도시권 문화협력 △전주농담학사 입사생 자격 완주군민 확대 △청년 스타트업 원(주)전(주)UP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 △에프투어(F-Tour) 연계 관광상품 출시 △완주-전주 자전거도로 확충 △전주권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등 경제, 문화, 환경, 건설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함께 발굴·

추진하고 있다.

### ▲기부의 가치를 공유해 지방위기를 벗어나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각 지방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환기와 지역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문제의 돌파구로 기대받고 있다.

전주시 민선8기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완주를 시작으로 나주, 부안, 익산, 장수, 남원, 진주 등 타 시군과 상호 기부를 통한 협력 관계를 쌓고 있다. 양 지자체장이 상호 기부함으로써 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기부금 전달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약속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물꼬를 트게 됐다.

### ▲미래세대를 위해 대학과 함께 나아가다

전주시는 전주의 미래를 견인할 다음 세대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대학과 활발하게 손을 잡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6개 지역 대학 총장들과 만나 민선8기 전주시-대학 상생협력 위한 총장 간담회'를 열어 관·학 간 연대·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았다. 전주시는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청년인재 유출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수들이 매주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인문학 강

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엔 전주전대학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들이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지난 3월 시는 전주교대와 '지역 내 청소년의 자치배움활동화 및 예비교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전주교대는 이날 협약식에서 청소년과 청년, 전주시민, 지역공공체에 인성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는 전주 발전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는 전북교육청과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 시와 전북교육청은 전주중합경기장 일대를 전시킨벤션 산업의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교육캠퍼스-중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력의 힘으로 강한 경제를 견인한다

전주시 민선8기는 전주를 강한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 및 지역기업들과의 협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전주 일자리를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는 전북 전주형 일자리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열고 탄소산업 관련 노사민정 대표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상생형 전주 일자리 지정을 통

해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생산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강한 경제 구축의 최전선에서 있는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4월 10일 바이전주주수업체 협의회 소속 업체 대표 등과 기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업 릴레이 소통-DAY'를 가졌다. 우 시장은 이날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기업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기업 릴레이 소통'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연구기관들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지난 3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14개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경제 육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자문회의'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은 △전주지역 산업경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상호협력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에 적극 나서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발전과 전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북도와 타 지자체, 전북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상호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 대변역을 이룩해 전북중추도시로서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25일 중화산1동과 중화산2동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시민 생생한 목소리 현장에서 듣다

### 우범기 전주시장, 중화산 1·2동 순방... 소통의 시간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중부권 주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역을 위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25일 중화산동과 중화산2동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먼저 오전에는 신흥고 서남동출에서 중화산동 주민 및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300여 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참여한 중화산동 주민들은 주요 관심사인 △어은로 오거리 교통안정 대책 △선너머공원 인근 경로당 신축 △한두평공원 인근 인도 신설 △중화산동 청사신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 시장은 이어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강당에서 중화산2동 주민과도·시의원,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이어갔다.

참석한 주민들은 △중화산2동 주차난 해소 대책 △신촌2지구 공동주택사업 진행 상황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및 인도 신설 △선너머로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화산공원 등산로 정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편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민선8기 전주시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양은경 기자

##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 '만전'

### 전주시 덕진구, 전주국제영화제 등 앞두고 사전 점검·정비 강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비해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구는 4월 말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전주에서 국제단위 대규모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청소 △교통 △가로정비 △숙박업소 점검 등 각 분야별 환경정비를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주에서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4월 27일~5월 6일)와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4월 26일~5월 6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5월 12일~5월 20일)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구는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국소리문화의전당과 삼성문화회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실내체육관 등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출동 기동차량(8명)을 편성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 기동차량반은 행사장 주변 적치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며,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또한 구는 국제행사가 집중되는 2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끝으로 구는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운영해 적정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이복 기자

## 완산소방서, 마약 중독 환자 응급처치·대응방법 교육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25일 오후 3층 대회의실에서 119구급대원 및 펌블런스 요원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환자 응급처치 및 대응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중독 환자

와 접촉할 우려가 높은 119구급대원의 대응 강화와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교육 강사는 원광대학교 응급의학과 과장 최정우 구급지도사의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 배경 및 개요 △마약 중독 관



런 사례 공유 △마약 중독 초기증상 △중독 환자 대상 현장대응방안 안내

△중독환자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향후 도내 소속 119구급대원의 구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주완산소방서 학습연구실에 교육 영상을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으로 의학 분야 지식과 대응능력을 키우고 도민에게 질 높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준은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